

주일에배	오전(1부) 대방동	7시
	오전(2부)	7시
	오전(3부)	10시
	오후(4부)	3시
	수요일예배 (저녁)	8시30분
서울 교회 02)533-9191		
장소 : 강서구 공항대로 376 KBS스포츠월드		



주일에배	오전(1부)	7시
	오전(2부)	10시
	오후(3부)	3시
	저녁예배	7시
	금요일예배 (저녁)	8시
인천 교회 032)763-9191		
장소 : 인천시 서구 백범로 652번지		

대한예수교장로회 예수중심교회

2019년 6월 23일 (제1008호)

(서울)서울시 용산구 용산우체국 사서함 37호 Tel. 02)533-9191 Fax. 02)592-9191 (인천)인천시 서구 백범로 652번지 Tel. 032)763-9191 Fax. 032)575-5730 http://www.jcc.tv(철야 주일 예배 위성 및 인터넷 생방송)



홍 우 겐 렘

새벽부터 씨를 뿌려라

“새벽부터 우리 사랑함으로써 저녁까지 씨를 뿌려봅시다/ 열매 차차 익어 곡식 거둘 때에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거두리로다 거두리로다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거두리로다 거두리로다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우리가 잘 알고 자주 부르는 찬송이다. 그런데 이 찬송 속에 성공의 비법이 들어있다는 사실을 아는가. 단순하지만 확실한 진리가 이 찬송 속에 있다. 바로 새벽부터 저녁까지 씨를 뿌리는 것이다.

새벽부터 저녁까지 씨를 뿌리는 자는 대능이 된다. 새벽부터 저녁까지 공부하는 자는 반드시 그 분야에 최고가 되고, 새벽부터 저녁까지 운동을 하면 건강은 물론이고 챔피언도 되고, 새벽부터 저녁까지 기도하면 무엇인들 응답받지 못하겠는가.

‘새벽부터 저녁까지’는 시간적인 의미를 뜻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것을 접어두고 이것에만 열중하고 최선을 다하는 것을 의미한다. 곧 다른 말로 올인(All-in)이며 노력이다. 노력이라는 무기보다 강력한 것이 어디 있으랴. 노력이라는 친구는 한 번도 우리를 배신한 적이 없다. 남들 자는 시간부터 남들 놀고 다시 자는 시간까지 공부하고 연구하고 일하고 운동하고 기도하는데 누가 이런 자를 당해낼 수 있을까.

우리 손자 녀석이 재학시절 과 수석을 해온 적이 있다. 내가 대견하다고 칭찬했더니, 옆에 계시던 박 권사님이 ‘밥 먹고 공부만 하는데 그것도 못해요?’라고 하셨다. 웬말씀이다. 새벽부터 저녁까지 공부만 하는데 과 수석도 못하랴.

성공한 사람들은 다 새벽부터 일어나 그것에 전념해서 기쁨으로 단을 거둔 자들이다. 우리가 못하는 것은 안 하기 때문이다. 최선을 다하지 않기 때문에 이루지 못하고, 잡지 못하는 것이다. ‘구하라, 찾으라, 두드려라’ 하신 주님의 말씀을 잘 생각해야 한다. 대중 구하고, 대강 찾고, 조금 두드렸는데 해결된 것이 아니다. 그렇다면 뭣 하러 누가복음 18장에 재판장을 찾아간 과부의 비유를 하셨을까?

목표를 정했는가? 그렇다면 새벽부터 저녁까지 씨를 뿌려라. 반드시 기쁨으로 단을 거두게 될 것이다.

우리는 여전히 가야할 길이 있다

목사님이 하신 말씀 중에 생각나는 것이 있다.

“가장 무서운 사람은 어떤 상황에서도 자기 일을 하는 사람이다.”

맞다. 인류 역사의 진보는 중도에 포기한 사람들이 아니라 ‘우공이산(愚公移山)’의 정신으로 자신의 목표를 향해 정진해간 사람들로 인해 이루어진 것 아니겠는가. 목사님의 35년 목회를 보아도 이런 저런 일들에 휘둘려 하나님께서 목사님에게 맡긴 사역을 중도에 포기했다면 오늘의 목사님도, 예수중심교단도 없다. 목사님과 함께 일을 시작했던 사람들 중에서도 중도에 포기한 사람들은 지금 우리와 함께 하지 않는다. 목사님이 “시작

를 때, 목사님은 스스로에게 다짐하듯 선포하셨다.

“나를 원망하든 비판하든 헐뜯든 나는 내 길을 갈 것입니다!”

목사님의 오늘을 있게 한 정신을 단 한 문장으로 압축한 말씀이라 생각된다. ‘병사는 죽어도 전쟁은 이겨야 하고 꺾박과 순교가 와도 예수는 증거되어야 한다’는 목사님의 철학이 고스란히 담긴 문장이다. 시기하고 질투하고 원망불평하며 인생사의 갖가지 희로애락이 삶을 어지럽힐지라도, 거센 비바람에 흔들리는 돛대를 바로잡아 기어이 목적지를 향해 나아가려는 고군분투의 정신이 뚝뚝 흘러나오는 말씀이다.

사역을 수행하는 일, 하나님이 주신 사명에 부도내지 않으려는 책임감으로 정신을 조직화해 오신 목사님의 철학이 문득 문득 단문으로 흘러나오는 것이라 생각된다.

사노라면 여러 가지로 번민하며 고통스러울 수 있고, 기쁨과 슬픔, 성공, 좌절, 인간관계의 번잡한 고민들로 숨쉬기조차 힘들어 때도 오리다. 이 땅의 삶을 사는데 당연히 따르는 일들이다. 특별할 것도 없다. 악한 마귀가 지배하는 세상에서 인생의 암초들은 늘 다가오기 마련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단순화만이 답이다. 복잡다단한 일들로 휘둘릴 때 목사님처럼, 자신의 분



을 함께 하는 사람보다 끝을 함께 하는 사람을 원한다.”고 강조하시는 이유다.

우리는 분명히 가야할 길이 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내리신 지상명령이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행 1:8).

목사님은 35년 목회노정에 단 한 번도 이 길에서 벗어난 적이 없고, 이 일을 수행하는데 최우선의 가치를 두고 달려오신 분이다. 이러한 분명한 목적이 있었기에 꺾박과 환난이 몰아치는 속에서도 흔들림 없이 초지일관, 항구여일하게 이 길로 정진해 오신 것이다.

지난주일 3부 예배를 마치며 ‘비바람이 갈 길 막아도 나는 가리라’는 찬양을 부

2000년 겨울, 아르헨티나(Argentina) 부에노스아이레스(Buenos Aires)에서 집회를 마치고 이동 중에 있었다. 도심 거리에 작은 조각상이 있었는데 마상(馬上)에서 칼을 높이 빼들고 진격을 명령하는 장군의 모습을 조각한 것으로 기억한다. 목사님은 갑자기 그 위로 올라타시더니 이렇게 말씀하셨다.

“야, 우리 복음이나 전하자.”

당시 갑자기 그런 말씀을 하신 연유를 이제는 기억하지 못하지만, 이는 우리 삶의 방향과 대오를 일순간에 정리해주는 말씀이었다.

목사님은 해외집회 영상을 편집하실 때도 반복해서 하시는 말씀이 있다.

“그래, 내가 할 일은 이거야!”

인생의 온 방향을 오직 하나님이 맡기신

명한 목표를 자각하고 단일대오를 이루며 달려 나가는 자세로 스스로를 곧추세우는 일은 매우 지혜로운 처방이 아닐 수 없다.

우리는 여전히 가야할 길이 있다. 우리가 하늘의 부르심을 받아 이생과 작별하는 그날까지 가야할 길이다. 교회의 존재목적,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목적을 이루는 길, 곧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는 복음전파의 길이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내일도, 비바람이 갈 길 막아도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사도 바울을 본받아, 목사님을 본받아 이 길을 가는 것이다.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딤후 4:2).

한은택 목사

henry8829@naver.com

수요일예배

매주 수요일 저녁 8시 30분 KBS8체육관(화곡동)
문의: 02. 533. 9191



이초석 목사 주일설교(신30:9~20)

인간사 인과응보, 자업자득이다

인간사 인과응보(因果應報), 자업자득(自業自得)입니다. 즉 어떤 일의 결과가 나타나는 것은 그 결과가 나타날 수밖에 없는 원인과 이유가 있었다는 말이고, 자기가 저지른 일의 과보(果報)가 결국 자기 자신에게 돌아간다는 말입니다. 성경에는 이 인과응보에 대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진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갈6:7~8). 심은 대로 거두는 것은 만고의 진리입니다. 제 70평생에 무를 심고 배추 거두는 것을 못 보았고, 장미를 심었는데 국화가 나는 것을 못 보았습니다. 어디 농사꾼이겠습니까? 인생사 전반이 다 그렇습니다.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찌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마7:16~18). 이 말씀은 과정은 결과를 대변할 수 없지만, 결과는 과정을 대변한다는 말씀입니다. 과정이 나쁘면 결과도 나쁘고 과정이 선하면 결과도 선하다는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비판을 받지 않으려면(결과) 비판하지 말라(과정)고 하였고, 정죄를 받지 않으려면(결과) 정죄하지 말라(과정)고 누가복음 6장 37절에 말씀하신 것입니다. 대접을 받으려면(결과) 먼저 대접하라(과정)고도 하셨습니다(눅6:31).

남을 저주하려면 무덤을 두 개 파라

그런데 말입니다. 씨를 하나 심었다고 열매가 한 개만 열리는 것이 아닙니다. 씨는 하나 심었는데 많은 열매가 열리는 것처럼, ‘심은 대로 거둔다’는 진리와 함께 또 하나의 진리는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 주리라”(눅6:38)는 것입니다. 산에 올라가서 ‘야호’ 한 번 했는데, 메아리는 ‘야호! 야호! 야호!’ 하고 오는 것처럼 말입니다. 나는 남을 한 번 비판했는데, 나를 향한 비판의 샷대질은 엄청 많다는 것입니다. 누군가를 저주했는데, 저주가 흔들어 놀려 넘치도록 내게 온다는 겁니다. 성경도 말씀합니다. “저가 저주하기를 좋아하더니 그것이 자기에게 임하고 축복하기를 기뻐 아니하더니 복이 저를 멀리 떠났으

며 또 저주하기를 못 입듯하더니 저주가 물 같이 그 내부에 들어가며 기름 같이 그 뼈에 들어갔나이다”(시109:17~18). 시므이는 다윗이 압살롬에게 쫓겨 달아날 때 다윗에게 돌을 던지며 저주했습니다(삼하16:5~13). 그러나 다윗이 저주를 받은 게 아니라 시므이는 솔로몬 왕 때 왕명을 어겨 참수형을 받고 죽었습니다(왕상2:36~46). 모르드개와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한 하만도 결국 모르드개를 매달려고 자신이 준비한 장대에 달렸습니다(에7). 자기 무덤을 자기가 판 셈입니다. 또한 히스기야와 여호와 하나님을 저주하고 놀리던 산헤립도 18만

5천 명의 군대가 전멸하고, 자신도 그 몸에서 난 자들에게 의해 죽임을 당하지 않았습니다(대하32). 다윗을 저주한 사울의 결국이 비참함도 인과응보요, 자업자득인 셈입니다. 남의 눈에서 눈물 내게 하면 내 눈에서는 피눈물을 흘리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의 나의 삶은 10년 전, 20년 전에 내가 뿌린 것의 결과입니다. 인생이 가시밭길입니까? 내가 뿌린 겁니다. 아내가 당신을 냉대합니까? 잘 생각해 보세요. 당신이 아내에게 어떻게 했었는지. 콩 심은 데 콩 나지 팥 나지 않거든요. 이제라도 잘못 뿌린 것은 거둬들여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하나님은 일흔 번에 일곱 번이라도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나 그 대가는 반드시 치르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호와로라 여호와로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나 형벌 받을 자는 결단코 면죄하지 않고 아버지의 악을 자여 손 삼사대까지 보응하리라”(출34:6~7).

‘나와 마음이 합한 자’라 칭한 다윗에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다윗이 우리아의 처를 취하기 위해 우리아를 전쟁터에서 죽인 일을 하나님은 다 보셨습니다. 다윗은 나단 선지자의 책망에 눈물을 흘리며 회개했고, 하나님은 용서하셨지만 죄에 따른 보응은 받게 하셨습니다. “칼이 네 집에 영영히 떠나지 아니하라 하였고 여호와께서 또 이처럼 이르시기를 내가 네 집에 재화를 일으키고 내가 네 처들을 가져 네 눈앞에서 다른 사람에게 주리니 그 사람이 네 처들로 더불어 백주에 동침하리라”(삼하12:10~11). 정말 이것은 사실로 이루어져 큰 아들이 이복 형

제인 다말을 범하자 이에 분노한 둘째 아들 압살롬이 암논을 죽였고, 그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켰다가 요압의 손에 죽었으며, 셋째 아들 아도니아는 왕위 계승과 다윗의 침을 달라고 하다 솔로몬에 의해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또한 압살롬이 다윗의 침을 대낮에 왕궁에서 취하는 일이 벌어집니다. 물론 밋세바와의 사이에서 난 아들도 다윗의 간절한 기도에도 불구하고 죽었습니다. 씨는 하나 뿌렸는데 열매는 이렇게 여러 개 열린 것입니다. 옛말에도 ‘남을 저주하려면 무덤을 두 개 파야한다고 했습니다. 내 것도 파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 남에게 좋은 것을 줍시다. 그러면 좋은 것이 흔들어 놀려 넘치도록 옵니다(잠11:25). 요셉은 계속 선을 심었습니다. 그랬더니 선이 흔들어 놀려 넘치도록 왔습니다. 바로의 꿈을 해몽해주고 국무총리 대신의 자리에 올라 애굽과 인근 나라의 백성을 기근에서 구했고, 더욱이 아버지와 형제들과 해후하는 감격을 누리게 됩니다. 축복을 심으면 축복이 흔들어 놀려 넘

치도록 옵니다. 사랑을 심으면 사랑이 넘치도록 옵니다. 그래서 성경은 악을 악으로 갚지 말라고 하였고(롬12:17). 악을 선으로 이기라고 하셨습니다(롬12:21). 심지어 ‘원수를 사랑하라’고까지 말씀하신 것입니다(마5:44). 심은 대로 거두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콩 심은데 콩나고 팥 심은데 팥난다

아내를 미워했습니까? 남편이 돈 못 번다고 ‘나가 죽어라’고 저주했습니까? 자식에게, 시부모에게 어찌했나요? 회개해야 합니다. 잘못 뿌린 것은 뽑아버리고 이제라도 사랑한다고, 축복한다고 뿌리십시오. 여러분, 내 인생은 내가 만드는 겁니다. 생사화복을 내가 선택할 수 있습니다. “보라 내가 오늘날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네 앞에 두었나니 곧 내가 오늘날 너를 명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모든 길로 행하며 그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하는 것이라 그리하면 네가 생존하며 번성할 것이요 또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가 가서 얻을 땅에서 네게 복을 주실 것임이니라”(신30:15~16). 그러니 잘 심으세요. 좋은 것을 심으세요. 그러면 사(死)와 화(禍)가 절대 나지 않을 것이고, 생(生)과 복(福)만이 흔들어 놀려 넘쳐날 것입니다. 상사가 사사건건 나를 힘들게 해도 저주하지 말고 축복하세요. 그러면 내 인생에 축복의 길이 열리게 됩니다. 하나님이 그 상사를 치워주실 것이고, 내가 승진되게 하실 것입니다. 못된 이웃이 있습니까? 그래도 무조건 축복하는 겁니다. 국가나 기업이나 교회나 개인이나 남에게 좋은 것을 주면 이 땅과 내세에서 좋은 것으로 받게 됩니다. 오늘부터, 지금 당장 아내에게, 남편에게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라고 말하세요. 자녀에게도 ‘축복한다고 하세요. 부모님께도 아낌없이 ‘사랑하고 축복합니다.’라고 말하세요. 직장 동료나 이웃에게도, 구역 식구에게, 그리고 이웃나라까지도 사랑하고 축복합시다. 그래야 내게,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에, 우리나라에 축복이 흔들어 놀려 넘치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구제 및 선교 후원금

1379-01-001903

농협

695001-01-122494

국민은행

예금주: 예수동심교회

:: 객원컬럼 ::

:: 아름다운 인생 ::

큰 그릇은 빈 그릇이다

우리가 세상 사람과 달리 하나님의 자녀로서 권세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의 원천은 오직 하나님이다. 그 하나님을 내 아버지로 믿는 믿음이 있기에 비록 손해 볼 줄 알면서도, 바보, 미쳤다는 소리를 들으면서도 양보하고 용서하고 배려하려 애쓴다. 세상의 잣대에 비춰 그들의 생각과 달리 세상과 구분된 생각과 말, 행동을 할 수 있는 것은 내 뒤에 나를 책임지시는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다는 믿음이 있기 때문이다. 오리를 같이 가자고 하면 십리를 동행해주고, 속옷을 달라할 때 겉옷까지 벗어주며, 오른뺨을 치면 왼뺨마저 돌려댈 수 있는 능력은 결코 인간인 내 속에서 나올 수 있는 힘이 아니다. 이는 오로지 하나님께서 그리하라고 명령하셨기에, 원수마저 사랑하고 그를 위해 기도하라 하셨기에 나를 누르고 누르며 그 말씀(마5:39~44)에 복종하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수준이 ‘하나님 아버지의 온전하심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마5:48)는 것이기 때문이다. 다시 말하지만 이는 결코 인간으로서는 할 수 없는 일이다. 내 자아가 펄펄 살아있어서는 절대 할 수 없는 일이다. 이는 오직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정신,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야 가능한 일이다.

지난 수요일저녁예배 때 이시대 목사님은 ‘능력 있는 자가 용서하며 사랑과 용서에는 생명의 능력이 있다’고 말씀하셨다. 사실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을 사랑하고, 용서할 수 있는 상황에 용서하는 것이야 뭐 내

세울 것이 있겠는가마는, 왜냐하면 이는 세상 사람들도 다 하는 일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우리가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하나님의 말씀에 돌이켜 사랑하려 애쓰고, 용서할 수 없는 억울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용서할 때, 생명의 능력이 샘솟는 것이다. 크리스천의 능력은 하나님의 말씀에 나를 쳐서 복종시키는 결단에서 비롯된다. 나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나를 변화시키는 결단, 바로 여기에서 크리스천의 능력이 발휘되기 시작하는 것이다.

원망하고 불평하며 용서하지 못하는 것은 여전히 내가 살아있다는 증거다. 누군가의 행동에 서운하고 괴씸하고 억울함을 느끼는 것은 그의 말이나 행동으로 인해 나의 자존감이 침해당했다는 생각에서 비롯된다. 분쟁과 갈등, 원망과 분노가 싹트게 되는 시발점이다. 그 옛날의 전쟁은 이런 단순한 판단에서 시작되었고, 그로 인해 수많은 사람들이 명분 없는 싸움에 휘말려 죽어가기도 했다.

나를 비우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야 한다. 목사님은 말씀하셨다. “큰 그릇은 비어있는 그릇이다.” 아무리 커도 거기에 온갖 물건으로 가득 차 있다면 더 이상 채울 수 있는 방법이 없다.

비워야 한다. 내려놓아야 한다. ‘이기려면 버려야 한다’고 하지 않던가. 나를 비우고 예수로 채우는 삶, 사랑과 용서라는 생명의 능력도 여기서 시작된다.

Henry Han

:: To Be Succeeded ::

나로부터 시작되는 부흥

세계 기독교 역사에 길이 남아 있는 1907년 평양 대부흥운동은 1904년 원산 부흥운동에서부터 시작되었다고 한다. 원산 부흥운동의 중심에 있던 로버트 하디 선교사는 조선에서 수년간 사역했음에도 아무런 열매를 얻지 못하자 불평과 불만, 영육간의 탈진으로 괴로워했다. 모든 것을 내려놓으려 할 때 하나님은 그의 내면 은밀한 곳에 자리 잡고 있던 조 선인을 무시하고 미워하는 마음, 그의 교만함을 깨우치시고 깊이 회개케 하셨다.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조선인들의 고집스러움을 탓하고 환경을 탓하던 하디 선교사는 이제 자기 자신을 탓하고 가슴을 치는 성령의 사람이 되었고, 그의 회개를 시작으로 길선주 목사 등 조선의 기독교 지도자들을 비롯한 수많은 이들이 자신의 죄를 자백하며 성령으로 거듭나기 시작했다. 예수님이 하늘로 올리우신 후 오순절 마가다락방에서의 사건과 같이, 회개하고 성령의 충만함을 입은 이들로 말미암아 조선 부흥의 불길은 급속도로 번지기 시작했고, 이 불길은 한국 교회를 성장시키는 원동력이 되었다.

문명과 복음이 발 디디지 못하고 있던 암흑의 땅 조선을 은근히 비난하고 탓하던

하디 선교사는, 어린 두 딸을 조선 땅에 묻고도 수많은 아이들의 영혼을 보내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위로를 구하는 진정 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났다. 그리고 이제는 선교사를 세계에서 두 번째로 많이 파송하는 대한민국의 기독교 역사에 눈물로 생명의 씨앗을 뿌린 귀한 한 알의 밀알로 기억되고 있다.

우리 아버지께서는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고 서로 화평하라’고 말씀하신다. 비판과 미움은 있던 생명도 팔라 죽게 하지만, 나를 탓하며 다른 이를 용납하고 섬기는 곳은 생명이 잉태되고 속한 것들이 살아난다. 괴조물인 우리의 생각과 창조주인 하나님의 생각은 다르기에 우리는 날마다 나를 부인하기에 힘쓴다. 주님은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고 나의 나 된 것은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음’이라 말씀하신다. ‘미움과 비판의 어둠을 벗어버리고 모든 이들과 더불어 화평하기를 힘쓰라’는 주님 말씀에 순종함으로써, 나와 내 가정과 교회에 은혜의 생수가 찰랑찰랑 넘쳐흐르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한다.

이국진 사모

하나님의 방법대로

올해 슬로건인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생각하며 살자’를 삶으로 실천하는 일은 물론 할 수는 있지만 결코 쉽지 않은 일인 것 같다.

일을 할 때에 먼저 크리스천임을 밝히고 시작하기 때문에 겪는 어려운 상황들이 많다. 가끔은 ‘이런 상황이라면 예수님이라도 화내셨을 것’ 같은 일들과 직면도 한다. 극한 인내가 필요하고, 태평양 같은 마음을 지니지 않으면 폭발할 것 같은 경우가 있다. 그럴 때마다 “예수 믿는 사람이 왜 저래?”라는 말을 듣는다거나 나로 인해 하나님께 누가 되지 않기 위해 노력한다. 물론 그 당시에는 손해 보는 것 같고 억울하게 느껴질 때도 있지만 문제가 해결되고 나면 어김없이 더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는 하나님을 체험하기에 충분히 상황을 이길 수 있다.

하나님의 일 뿐만 아니라 세상에서 살아갈 때에도 하나님의 자녀들은 세상의 방

법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대로 갈 때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다. 총회장 목사님은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대사’라고 말씀하셨다. 대사는 파송된 나라의 법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보내심을 입은 나라의 법을 따라야 한다. 곧 우리는 세상의 풍조를 따르지 않고 하나님 나라의 법을 따라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매순간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즉 ‘하나님 나라의 법은 이럴 때 어떤 것일까?’ 생각하며 살아야 한다. 그러면 절대 남을 아프게 하는 일이 없게 되고, 남을 해치지 않게 되며,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게 된다.

믿음뿐 아니라 행위로서 세상 사람들과 구분되며, 세상 사람들에게서 인정을 받는 자들이 되자. ‘와우~ 과연 예수 믿는 사람은 다르구나!’

이은성 성도

es2563@naver.com



:: 삶이 있는 이야기 ::

한손에 병기를 들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입을 크게 열라’고 거듭 말씀하신다. 소꿉장난하듯 그저 더 나은 형편을 위해 구하기보다 하나님의 크신 계획을 이루고자 하는 포부를 가지고 구하라고 하신다. 그런데 그 뜻을 ‘아멘’으로 받고 나니 예상 밖의 폭풍이 불어왔다. 생각지 못한 난관에 부딪히면 이 길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이 맞는지 의심이 생긴다. 그럴 때마다 나를 일으켜주시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간 이후에도 하나님의 계명을 제대로 지키지 못해 징계와 훈련의 과정으로 70년간 바벨론과 페르시아 제국의 포로 생활을 겪었다. 예레미야를 통해 예언하신 회복의 때가 이르자 하나님은 페르시아 왕의 마음을 감동시켜 포로 된 이스라엘 백성들을 고국으로 돌려보내어 성전을 재건하게 하신다. 그런데 순탄할 것 같던 성전건축은 스룹바벨이 건축을 시작한 이후 느헤미야가 성벽을 완성하기까지 적들의 술한 음해와 방해로 인해 수십 년의 세월이 걸렸다. 이미 약속하신 축복의 새 성전을 주시면서 왜 그렇게 오랫동안 힘든 과정을 통해 주셨을까. 하나님은 그 과정 속에서 학개와 스가랴를 통

해 백성들을 격려하셨고, 에스라의 율법 교육을 통해 회개하게 하셨다. 그렇게 약한 백성들을 굳세게 하셔서 방해하는 적들에 맞서 한 손으로 건축에 힘쓰고 다른 한 손에는 병기를 들고 싸우는 수준까지 끌어올리신 것이다(느4:17). 힘들게 성전건축을 완성한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아멘으로 화답하며 눈물을 흘리는 모습은 감격적이다. 성전을 짓는 동시에 지킬 힘도 키워주시고 온전히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신 하나님의 책임 있는 사랑은 주저않은 나를 다시 일으키신다.

내가 아는 하나님은 주시고자 계획하신 것은 꼭 주시는 분이다. 대신 귀한 것들을 받아 쏟아버리는 일이 없도록 더 크고 단단한 그릇이 되라고 불에 굽고 또 구우신다. 그러니 우리는 그가 주시는 축복과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해달라고 몸부림치며 기도해야 한다. 하나님이 입을 크게 벌리게 하셨으니 한 손엔 병기를 들고 방해꾼인 마귀의 세력들과 싸워 이길 각오를 단단히 하자.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 같이 나오리라”(욥23:10).

이호은 사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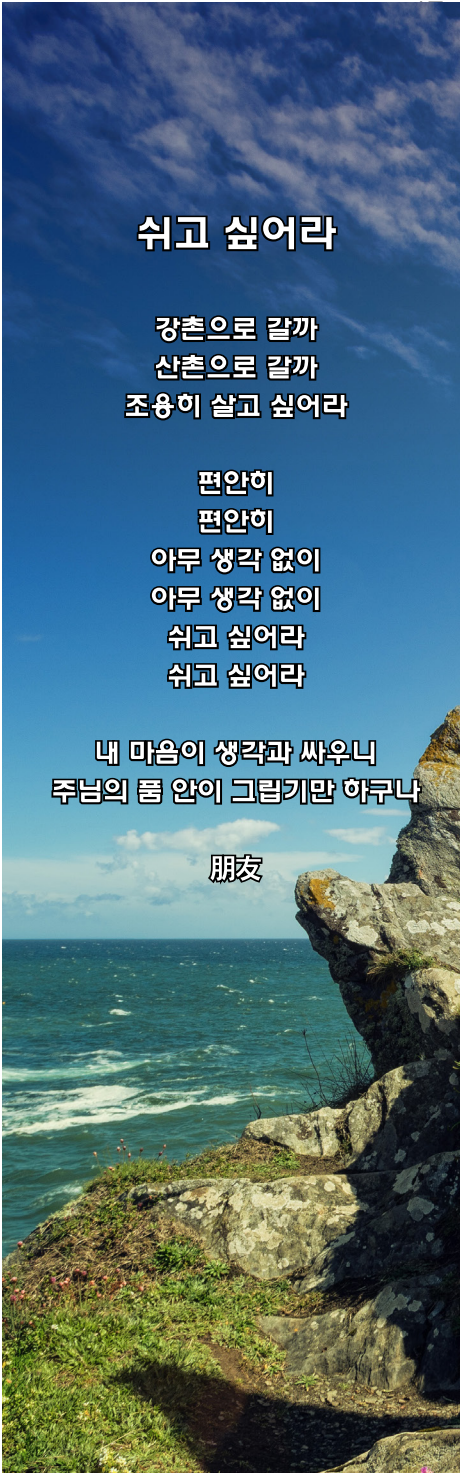
내가 너를 사랑한 것처럼...

최근 회사의 재무담당자가 피치 못할 사정으로 인해 출근이 어려워져 퇴근 후에도 연일 계속되는 업무지원으로 눈코 뜰 새 없이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전 입자는 제가 정말 많이 신뢰하고 아끼던 직원이었습니다. 저와 동갑내기인데다가 두 아이의 엄마로 책임감도 있고, 정직하고 성실한 사람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정말 안타까운 개인사정이 생겨 계속 근무하기 어렵게 되었습니다. 급하게 구인공고를 내긴 했지만 담당자를 충원하기에는 시간적 여유가 없었고 어쩔 수 없이 제가 그 업무를 인계받아 후임자를 가르치기로 하였습니다. 하지만 그 직원의 급박한 사정으로 인수인계는 단 2시간밖에 받을 수 없었고, 결국 스스로 연구를 하면서 업무를 습득하였습니다. 너무 갑작스러운 상황이라 약간 섭섭한 마음이 있었지만, 그래도 우리 회사를 위해 열심히 일해준 것에 감사했습니다. 그렇게 한 달이 지나갈 즈음 전입자와 함께 일하던 과장님을 통해 그동안 몰랐던 그 직원의 실체를 알게 되었습니다. 반복되는 거짓말, 직원들 뒷담화에다 권모술수까지 처음부터 끝까지 진실된 마음이 없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 사실을 알게 된 저와 직원들은 모두 크게 상심하였고, 배신감과 마음의 상처로 그 직원을 미워하게 되었습니다. 너무 억울해서 그 사람을 아는 사람을 만날 때마다 내가 그런 배신을 당했다며 비판하였습니다. 하나님께도 어떻게 사람이 이럴 수 있느냐며 그 사람이 원망스럽다고, 그러니 그런 일을 당

하는 거 아니겠냐고 기도했습니다. 원망하는 마음이 최고조에 이를 때 지친 마음을 이끌고 기도하던 중 하나님의 음성이 제 마음을 울렸습니다. “온유야, 그 아이도 내 딸이니라. 내가 너를 사랑한 것처럼 너도 그 딸을 사랑해다오.”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그리고 굳어져 있던 제 마음이 한순간에 녹았습니다. 그리고 그분을 미워하고 욕했던 제 모습이 한없이 부끄럽고 바보 같았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성도들끼리 서로 상처를 받았다고 미워하고 싸우기도 하는 걸 많이 보았습니다. 저 또한 같은 교회의 형제자매로 인해 마음에 상처를 입거나 피해를 본 일이 있어 비방했던 적이 있습니다. 웅졸한 마음에 혹시라도 마주칠까 피해서 돌아가고, 눈이 마주치면 얼굴을 피하고, 인사를 하려 해도 받아주지 않았던 적도 있습니다. 총회장 목사님께서도 싫어하는 것은 죄가 아니라고 하셨고, 제가 그 사람들을 미워하는 것은 아니고 싫어하는 것이니까 서로 부딪히지만 얹으면 그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지난 수요일에 이시대 목사님께서 복음의 핵심은 ‘용서와 사랑’이라고 말씀하시며,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 중 가장 큰 은사는 ‘사랑’이라고 하셨습니다. 가만 생각해보니, 총회장 목사님께서도 싫어하는 것은 죄가 아니라고 말씀하셨지만 그분은 단 한번도 싫어하는 내색을 하지 않으시고 우리 교단의 모든 성도들을 항상 사랑으로 감싸 안으셨습니다. 저는 사랑은 모든 것을 이기는 마음을 준다는 것을 깨닫게 되

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사 우리의 죄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하시고 그의 피 값으로 우리를 사셨습니다. 우리는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권한을 얻었고, 우리 모두 예수님 안에서 형제자매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믿음의 형제자매가 서로 시기하고 비판하길 원하지 않으십니다. 다섯 손가락을 깨물어 안 아픈 손가락이 없듯 우리가 시기하는 형제도, 우리가 비판하는 자매도 하나님의 아픈 손가락이기 때문입니다. 혹시 믿음의 형제자매가 당신의 마음을 너무 아프고 상하게 하여 마음을 풀지 못하고 계신다면 하나님의 음성에 조용히 귀기울여 보세요.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실 겁니다. “내 아들이, 내 딸아, 내가 너를 사랑한 것처럼 그 아이를 사랑해다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 가운데서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을 너희가 알고 저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귀히 여기며 너희끼리 화목하라 또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하노니 규모없는 자들을 권게 하며 마음이 약한 자들을 안위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 주며 모든 사람을 대하여 오래 참으라 삼가 누가 누구에게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말게 하고 오직 피차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좇으라(살전5:12~15).

김은유 집사



쉬고 싶어라

강촌으로 갈까
산촌으로 갈까
조용히 살고 싶어라

편안히
편안히
아무 생각 없이
아무 생각 없이
쉬고 싶어라
쉬고 싶어라

내 마음이 생각과 싸우니
주님의 품 안에 그림기만 하구나

朋友

:: 치우치지 않는 저울 ::

주의 종을 통한 성도의 축복

2017년 하계산장집회 3주차를 앞둔 어느 날, 어머니로부터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어머니는 다른 설명 없이 “너, 예수님을 천 번 대접할 수 있니?”라고 물으셨습니다. “할 수 있다면 해주세요.” 저의 대답을 듣고 바로 전화를 끊으셨습니다. 막연히 오랜 시간과 많은 물질이 필요한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다시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어머니께서 그 질문을 하신 사연을 말씀하셨습니다. 총회장 목사님께서 어머니의 소속 지교회를 방문하셨는데, 단번에 예수님을 천 번 대접할 수 있는 방법을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예수님께 한 것이니, 기도원에 모인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작은 것이라도 천 개를 대접하면, 단번에 예수님을 천 번 대접할 수 있다”(마25:40, 마10:41~42)는 것입니다. 사실 재정적으로 어려웠던 때였습니다. 당장 집을 구해야 했는데, 전세보증금이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대출이 가능한지도 알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형편과 상관없이, 총회장 목사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습니다(살전2:13).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그 즉시 아이스크림 3천 개를 기도원으로 보냈습니다. 사

랑하는 나의 예수님을 단번에 3천 번이나 대접할 수 있다니... 작은 것이지만, 예수님께서 직접 드시는 상상을 하며 설레는 마음에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며칠 뒤, 한 꿈을 꾸었습니다. 예쁜 새집에 들어서는데, 어머니께서 이시대 목사님이 오셨으니 얼른 들어가 보라고 하십니다. 식탁 앞에 앉아 계신 이시대 목사님은 메뉴판을 보시며 무엇을 대접해줄까 고민하시는 듯 보였고, 그 옆에는 주일마다 총회장 목사님을 식사로 섬기는 권사님께서 맛있는 음식을 만들고 계셨습니다. 권사님께서 “아이스크림 맛있게 먹었어요.”라고 웃으며 인사를 하십니다. 꿈에서 깬 후에 가만히 되짚어 보았습니다. 아주 작은 아이스크림이라도 예수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사자를 보내셔서 새집에서 좋은 것으로 대접해주시니 감사한 마음을 표현할 길이 없어서 이내 눈물이 차올랐습니다. 그 후, 전셋집을 구하던 저에게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약 2개월 뒤, 예쁜 새들이 머무는 숲이 있고, 창문 한가득 하얀 둥게구름을 품은 푸른 하늘이 보이는 새집에서 이시대 목사님을 모시고 하나님께 입주 감사예배를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인도

하신 과정을 짧은 글로 다 적지는 못하지만, 하나님은 한 치의 오차도 없이 정확한 때에, 전혀 상상하지 못한 방법으로 전셋집이 아닌 아이스크림 100배의 새집을 저에게 대접해주셨습니다. 성경에는 주의 종을 신뢰하고 그 말씀에 순종했을 때, 기적을 체험한 인물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 중 여호사밋 왕은 모압과 암몬의 대군이 침략해오자 두려움과 절박함으로 금식령을 선포하고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곧 ‘이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두려워하지 말고, 너희와 함께한 하나님께서 구원하는 것을 보라’고 선지자 야하시엘을 통해 응답하였습니다. 여호사밋 왕은 선지자의 말씀을 믿었고 백성들에게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견고히 서리라. 그 선지자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고 외쳤습니다. 그리고 전쟁에 나갈 때에 선두에 찬양대를 세워 하나님을 찬양하자, 하나님께서 복병을 두어 혼란을 일으키셨고 적군들은 자기들끼리 서로 쳐서 죽이고 결국 전멸하게 됩니다. 많은 전리품을 얻었을 뿐만 아니라, 이방 모든 나라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여호사밋 왕은 평화로운 가운데 나라를 다스렸습니다(대하20:1~30).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받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의 피로 사신 교회를 돌보도록 주의 종을 감독자로 세우셨고(행20:28), 주의 종에게 예배권, 축복권, 판결권을 주셨습니다(신21:5). 그리고 주의 종이 축복할 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지켜주시며, 은혜 베풀어 주시고, 평강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민6:22~27). 특별히, 우리 총회장 목사님은 ‘목숨을 하나님께 바치겠으니, 나를 따르는 무리들을 축복해 달라’고 기도하시는 분입니다. 목숨을 하나님께 바친 주의 종의 입에서 나온 말씀을 신뢰하고 순종하는 성도를 하나님께서 어찌 축복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과 성도를 위한 진심 어린 축복이 담긴 목사님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응답하셨고, 앞으로도 응답해주시리라 믿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주의 종을 신뢰하는 성도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견고히 세우시고, 형통한 길로 인도하시는 축복이 있기를 기도합니다(대하20:20).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삼상15:22).

정명관 성도
vic-777@daum.net